

11/13/22

설교 제목: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심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요한복음 14 장 15-31 절

(요 14:15)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 14:16)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 14:17)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요 14:18)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 14:19)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요 14:20)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 14:21)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 14:22)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절관주** 눅 6:16, 행 10:40, 행 10:41

(요 14:2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요 14:24)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요 14:25)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요 14:26)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절관주** 눅 24:8

(요 14:27)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 14:28)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절관주** 요 14:3, 요 14:18

(요 14:29)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요 14:30) 이 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의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요 14:31)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절관주** 빌 2:8

13 장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만찬 석상에서의 말씀은 17 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십자가 죽음을 몇 시간 앞둔 예수님이 당신이 떠나면 외로이 이땅에 남게 될 제자들에게 남기는 고별 설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또 근심하지 말고 당신을 믿으라고 다시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을 사랑한다면 당신이 주신 계명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요 14:15)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이 주신 계명은 바로 이것입니다.

(요 13:34)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 13:35)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슨 상관성이 있길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여러 형태로 사랑을 나누며 삽니다.

형제 자매가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물질적인 도움을 준다든지, 슬픔을 당하였을 때 마음을 다하여 위로해 주고 보듬어 준다든지,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을 때 힘이 되어준다든지, 외로울 때 함께 해 준다든지, 하지 못하는 필요한 일들을 대신 처리해 준다든지 등등

이러한 모든 행위들이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라도 우리는 어떤 사랑의 행위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가장 절실히 요구하시는 사랑의 행위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의 행위 중 가장 적극적인 사랑의 행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는 인간을 영원히 살게 하려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권력도 물질도 인기도 쾌락도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을 동안만 유효합니다.

고통도 슬픔도 외로움도 잠시 곧 지나갑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영원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렇지만 계명을 지키는 일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당신이 떠나시며 '다른 보혜사'를 보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 14:16)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곁에라는 뜻의 '파라'와 말하다라는 뜻의 '클레토스'의 합성어입니다.

직역하면 곁에서 말하는 자로 곧 대언자 혹은 위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대언자로 오셨습니다.

(요일 2:1)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기에 예수님은 떠나시며 그냥 보혜사를 보내 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시고 당신을 대신 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약속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오순절에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던 120 문도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 곧 진리의 영을 가리킵니다.

(요 14:17)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세상은 거짓의 영인 사탄의 지배 하에 있는지라 진리의 영인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 그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떠난 후 진리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하십니다.

당신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 14:18)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 14:19)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오실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 본인이 오시는 것이지만 동시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신과 성령과의 관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당신과 성령은 하나 일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는 원문인 헬라어로 직역하면 “너희가 나를 보고 내가 사는 고로 너희도 살게 되리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백성을 영적으로 살려주는 생명의 근원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봄으로써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믿는 자의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씀하십니다.

(요 14:20)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생과 성화, 행위와 생활, 죽음과 부활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그리고 이 연합은 영원하여 죽음도 그것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앞에서 하신 당신을 사랑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일에 대한 상관성을 강조하십니다.

(요 14:21)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 14:22)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요 14:2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요 14:24)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새 계명을 주셨다고 하니 모세의 십계명을 포함해 율법은 이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모세의 십계명을 대체하거나 갈아 엮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그것의 완성입니다.

새 계명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을 사랑의 동기로 행하여 의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욱 더 명확하고 철저하게 사랑의 동기를 가져야 합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이미 그리스도로 인해 속죄를 받은 상태에서 그것을 누리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신약의 성도들은 이미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 받은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렇지라도 죄성이 흐르는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계명을 지켜 의인이 될 수 있는 인간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그 사실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만이 인간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여야만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요 14:25)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요 14:26)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우리 속에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며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요 14:27)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이 겪게 될 환난을 아셨습니다.

후에 제자들을 비롯해 초대 교회 교인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담대히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내주하고 계신 성령의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막 13:9)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 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막 13:10)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막 13:11)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 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 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라면 당신의 가심을 기뻐하였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요 14:28)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은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것이며 또한 그가 가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의 구원이 완성되는 까닭입니다.

본장의 결론입니다.

(요 14:29)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요 14:30) 이 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인 오겟음이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요 14:31)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예수님은 결론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예수님이 먼저 성령을 언급하신 것은 후에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이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어 사단에게 정죄받을 이유가 전혀 없으나 사단으로부터 해를
받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당신의 십자가 죽음은 세상의 임금인 사단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가 주신 새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가지 행위로 서로 사랑하며 삽니다.

그렇지라도 그중 가장 적극적인 사랑의 행위는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부모 형제 자매 친구 친척 이웃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당장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확히 말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또 그들을 진정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한 순간도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는다면 그들은 영생을 얻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 형제 자매 친척 친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아주 가까이 있어 우리의 부족함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라도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때를 놓치고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